

# “목포대·순천대, 의대 정부 추천 道 공모 참여해야”

## 국립의대설립범도민추진위, 양 대학에 건의문 집행위원회 회의 “공모가 유일한 해법” 강조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이 본래도에 오른 가운데 전남도민 대표로 구성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가 목포대와 순천대에 의대 설립 대학 정부 추천을 위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범도민추진위는 9일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 집행위원회 6차회의를 열어 ‘양 대학 정부 추천 의대설립 공모 참여 건의문’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명창환 공동 집행위원장과 의료계·경제계·학계 등 집행

행위원들이 참석했다. 범도민추진위는 건의문을 통해 “전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에 2개, 충북에 2개, 강원도에 4개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개의 의과대학도 없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전남도에 대학 추천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 요청 대로 반드시 전남도가 대학을 추천해야 정부가 의대 신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도민추진위는 또 “정부 추천 공모

만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도민추진위는 전남도에 공모 추진 전 과정에서 대학·이해관계자·도민 등과 충분한 소통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는 대통령 말씀과 국무총리 답변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속한 신설 방침 확정을 건의하고, 지역과 정치권에는 지역의료체계 완결과 전도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남도 정부 추천 공모에 성원과 지지

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 범도민추진위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전남권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범도민추진위도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집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집행위원들에게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공모 계획’을 설명했다. 집행위원회는 범도민추진위를 이끄는 중심 기구로 의료계, 경제계, 학계 등 대표 1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 기관인 글로벌 컨설팅업체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설립방식선정위원회(7-8월), 사전심사위원회(9월), 평가심사위원회(10월)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말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김지사, 중국 저장성 당서기와 회담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현지시간)중국 저장성 서호국빈관에서 이련홍 저장성 당서기(오른쪽)와 회담을 마치고 밝은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련홍 중국 저장성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상호발전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미래먹거리 접목 국비과제 발굴 주력

### 29일까지 기획지원 과제 공모...9대 지역 대표산업 등 연계

광주시가 지역 미래먹거리를 접목한 경쟁력 있는 신규 국비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9일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고 광주의 9대 대표 산업 등 특화 분야와 미래 먹거리를 접목할 수 있는 신규 국비 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지원 과제를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병원,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발굴 대상 산업 분야는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에너지 ▲메디컬스캐어 ▲스마트푸드 ▲광·가전 등 지역 9대 대표

산업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광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고 국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제들을 선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과제 기획을 3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기획이 완료된 과제들이 향후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수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지역 미래먹거

리 과제 발굴을 위한 별도 기획 지원 예산을 편성, 신규 국비 과제 발굴과 지역 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총 202건의 미래먹거리 과제를 발굴, 기획 지원을 통한 미래 국가산단 지정, 자율 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과 지역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대형 사업 등 총 42건이 국비 과제 선정으로 이어졌다. 국비 확보액만 총 5천900억원에 달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실장은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당 과제들이 지역 미래먹거리의 씨앗이 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과제로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떡깨비’ 선착순 4천명 5천원 할인

### 전남 공공배달앱 2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

전남도는 9일 “2022년 7월 도입한 공공배달앱 ‘떡깨비’ 2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선착순 4천명 대상 5천원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떡깨비 앱에서 결제하면 5천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5% 페이백 이벤트와 동시 적용 가능하다. 공공·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도는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뽕겨요’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가입비, 광고비 없이 가맹이 가능하며 신규 가맹점은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떡깨비는 올해 상반기 결산 기준 누적 가맹점 1만개소, 회원 10만명, 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대비 가맹점은 16%, 회원 수는 10% 증가했다. 2023년 12월 도입한 뽕겨요는 누적 가맹점 2천개소, 회원 수 3만명, 매출액 6억원을 달성했다. /양시원기자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할인 이벤트와 가맹 혜택 제공, 홍보로 공공·상생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 췌장, 파라과이와 소방 교류 등 논의

### 로메로 파라과이 대사 접견...市·소방본부에 감사패 전달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시청 접견실에서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 파라과이 대사와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광주시와 파라과이 간 소방 교류 및 자연·사회재난 안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로메로 대사는 이날 광주시와 광주소방안전본부에 소방 교류협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로메로 대사는 “한국은 파라과이 소방시설 개선에 가장 많이 지원·협력해준 나라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광주와의 인연은 우호관계를 넘어 가족,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며 “소방차량, 교육연수, 기술 교류방안 등 광주시의 지원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자연·사회 재난은 날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성장하며 시민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외교를 통해 포용도시로 한발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도의회 민주원내대표에 신민호 의원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신민호 의원(순천6)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했다. 신민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하도록 앞장서겠다”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정책정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